

공동체로 읽는 창세기

* 이 eBook의 모든 저작권은 이익상에게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위한 강의안이나 설교의 자료로 사용하는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읽는 창세기

창세기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

창세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뼈 속 깊이 까지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들, 새, 물고기, 짐승들은 모두 복수나 집합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고, 아담을 돕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며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독한 개인주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개인주의적인 세상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책으로 읽혀져야합니다.

공동체 이해의 중요한 열쇠-관계(비교)

히브리어 전치사 **케** **קִּ** 는 "~처럼", "~로서", "~와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자격을 나타내거나, 비교를 하는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예

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비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돕는 이(베필)를 배우자로(자격) 만드셨습니다. 비교의 의미이던 자격의 의미이던 간에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 **를** 하나님이 아닌 창조된 피조물을 주체로 처음으로 사용한 구절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5)입니다.

사탄,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것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고, 어느 것하나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같은 간교한 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하는 질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외경 **Vita Adae et Evae** (아담과 이브의 삶)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비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여섯째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뱀은 바로 그것을 질투를 했던 거지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인간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질투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질투심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질투심은 "아 저 사람이 저런 재주와 능력이 있으니,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발전적인 생각보다는 "저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거야"라는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려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 내려

서 나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던 뱀은 "나도 인간처럼 하나님이 보시면 서 아주 좋아하실만한 뱀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인간을 끌어내리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고대 성서해석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출발은 **비교**, 그리고 그 비교가 만들어 낸 **질투**였습니다.

뱀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와에게 **비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범하게 말입니다. 감히 창조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하나님처럼 (비교)될 수 있다**고 꼬득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람과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게 하는 원인은 **비교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이들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지요.

☉ 성경상식

사탄은 히브리어 입니다. 히브리어 사탄 **꺄꺄**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대적자",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에 정통해서 나의 단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는 알미운 사람이면서 무서운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을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예. 삼상 29:4).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지 비교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들은 사탄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지요.

창세기의 대략적인 내용들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와 분류는 공동체를 위한 창세기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구성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따르면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어떻게 공동체가 분열되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의 이야기들의 첫 출발은 모두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때때로 잘못된 관계 형성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합니다.

소재	장	내용
천지창조	1-2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동산	3	뱀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다
가인과 아벨	4	가인이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다
노아의 홍수	6-10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다
바벨탑	11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하다
아브라함	12-26	더 풍요로운 이집트에 가다
야곱	27-36	형을 뛰어 넘고자 하다
요셉	37-50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가인과 아벨 - 나를 돌아보지 않고 현상과 결과만을 단순히 비교하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 4:4a). 그러나, 가인은 아벨처럼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 4:3a). 아벨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성경상식

(창 4:3 하반절) וַיֵּבֶא קַיִן מִפְּרִי הָאֲדָמָה מִנְחָה לַיהוָ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 4:4 상반절) וְהֶבֶל הֵבִיא גֹּמְהוּא מִבְּכֹרוֹת צֹאֲנוֹ וּמִחֻלְבֵּינֹן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Syntax)는 성서를 이해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성서에서 서술형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히브리어의 문장 구조는 "바브 연계형"입니다. 히브리어 접속사 1 다음에 미완료형 동사, 그리고 주어 가 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어 문장 구조의 형태가 중간에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렸는가를 설명하는 창 4:4 상반절에 나오는데, 접속사 1 다음에 주어, 그리고 완료형 동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어순이 바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복되는 동작을 말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께 꾸준히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히브리어로 **민하** מנחה 라고 합니다. 제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베코르** בכר 를 드렸다고 히브리어 성서가 말합니다. 베코르는 땅의 소산이든 가축으로 드리는 제물이던 간에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형제가 드렸던 제물이 땅의 소산인지 아니면 양의 기름인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 제물을 드릴 양을 관심 깊게 돌보았지만, 가인은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제물과 준비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창 4:7).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자신과 아벨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의 분노가 살인이라는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 성경상식

히브리어에서는 처음 것으로 드리는 두가지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로쉬트 ראשית 라는 말은 '처음 거두어 드린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은 비쿠림 בכורים 입니다. 비쿠림은 '처음 태어난 것' (장자), 또는 '처음 익은 것'을 의미하는 '베코르'의 복수형입니다. 제사장 신학(P)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두 제물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외 (J,E,D)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둘을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사무엘상 2:29; 15:21)

노아의 홍수 -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이 부럽기도 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겠지요 (비교).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도 자유한 것이 마치 에덴동산의 먹지 말아야하는 그 열매처럼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한 것입니다.

☉ 성경상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בני אלהים 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히브리어 אלהים 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출 4:16).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인 랍비 싸디아 가온과 랍밤, 그리고 라닥은 사람의 딸을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비교하여 볼 때에 훨씬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을 동경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결혼의 관계를 맺고 그 혼인관계로 태어난 자녀들은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릇된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가 용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릇된 비교는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만들었고, 바르지 않은 관계의 결과는 결국 다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벌은 사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생명체들을 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공동체이고, 성경은 뼈 속까지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가야하는 인생들입니다.

바벨탑 -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자하다

바벨탑을 세우려던 이들의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것(창 11:4)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창조의 세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해하였습니다. 거대한 둥그런 천체에 별들이 매달려 있고, 땅은 평평하고 땅 아래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깊은 어둠의 세계(스올)가 있습니다. 해와 달은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하늘로 떠오르고 다시 집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만약 사람들이 탑을 세워서 그 탑이 하늘에 닿게 된다면, 그 탑위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뛰어 넘어 창조의 질서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세우려는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처럼(비교)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며 하나님보다 더(비교) 위대한 존재가 되고픈 욕망을 드러내는 거지요. 이러한 욕망의 끝은 철저한 공동체의 분열 (언어의 나뉘어짐)이었습니다.

☉ 성경상식

성경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해가 뜬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해가 나온다" אֵצֶק 라고 표현하고 (창 19:23), "해가 진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해가 들어간다" אֵצֶק 라고 표현합니다 (창 15:12). 이런 표현은 위와 같이 천체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면 해가 뜨는 것이고,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면 해가 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비교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던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자,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더 풍요로와 보이는 (비교)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는 당장에 먹고 배불러야하는 배의 문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집트가 더 좋아 보였지만, 정작 좋아 보였던 이집트에서 아브라

☉ 성경상식

"아브라함이 아내 사 را를 누이로 속였다"는 말이 고대 성서해석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것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고대 성서해석자들은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점 잘못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완전한 성인이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경인 희년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5년을 살았는데,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 را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고대 성서해석자들의 바램이 담긴 성서 이해라고 보면 됩니다.

함은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좋은 것을 보고 갔지만, 사실 그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아브라함 본인은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사라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식솔들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알땅은 유대광야의 땅보다 (비교) 더 좋아 보인데다가, 소알 땅이 이미 맛본 이집트땅 같았기 (비교) 때문에 소알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주저 없이 그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본 곳의 더 풍요로움에 눈을 빼앗겼던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의 조카 롯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삭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 26).

아브라함의 두 아내들과 아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두 어머니들인 하갈과 사라의 다툼 역시 아들들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하갈이 먼저 잘못하였느냐, 사라가 먼저 잘못하였느냐의 문제는 성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남편인 아브라함과 아들들 사이에 두고 벌인 두 여인들의 갈등은 자신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 아들들마저도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 두 아들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세계 평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야곱 -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좋지 않은 것들은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걸쳐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으로 내려온 비교하려는 그릇된 관행과 버릇은 그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우

인 자기가 갖지 못하는 만형의 권리를 탐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배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고, **가문의 최고 어른의 지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대표해서 **제의에 참석**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형이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형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 (**비교**)이라는 생각에 죽으리만큼 허기진 형에게 그냥 주어도 되었을 팔죽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에서가 만형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긴 것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였던 야곱에게도 결코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다.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야곱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과 형에게 돌아갈**

☉ 성경상식

성서 시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광야의 법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손님이라는 말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뿐 아니라, 혈연이나 지연으로 관계가 없을지라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광야를 헤메는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가 왔을 때에, 물과 빵 그리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이면서, 동시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권합니다. 우연히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 18장) 도 역시 이런 광야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환대하는 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형에게 먹을 것을 팔아 먹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은 야곱을 위한 변명을 하였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의 몫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의 복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비록 정직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아버지께 정직한 아들이 되느냐의 선택사이에서 야곱은 보다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죄가 죄를 불러 더 큰 죄를 낳는 이치입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들의 편애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편애 역시 다른 모양의 비교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두 아이들은 경쟁하고 서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경쟁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형과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였고, 부정적인 방법들과 거짓말들마저도 스스럼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은 결국 형으로부터 맏형의 권리를 사들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가족의 붕괴라는 엄청난 댓가를 치루어야했습니다.

요셉 - 끝까지 편애하다

요셉의 이야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편애)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애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노년에 얻었다는 것, 그 아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지혜로왔다는 것,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용모가 출중하였다는 것, 이런 비교들이 요셉을 편애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였고 아들들은 들에서 목동의 일을 하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곁에서 험한 일(목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며 스스로 가족 공동체에서 이질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제들마저도 자기에게 복종하는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지 않게 하여서 공공연

☉ 성경상식

(창 37:3 상반절) וַיִּשְׂרָאֵל אֶת־יוֹסֵף מִכָּל־בָּנָיו כִּי־בְנוֹ יִקְנִים הוּא לוֹ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성서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를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라는 말 히브리어 자켄 **קָנָן** 은 "현명한"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לוֹ בֶן יִקְנִים הוּא לוֹ** 라는 말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가 현명하기 때문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미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기 보다는 아버지에게 이르고, 형제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를 이끄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의 발단**은 단지 형제들의 질투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독한 요셉 편애는 요셉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만행에게 주어질 두배의 몫을 요셉에게도 주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아서 유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창 48).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에 요셉의 지파 (

에브라임과 므낫네)와 그렇지 않은 지파와의 뿌리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이미 야곱의 시대부터 있었던 메울 수 없는 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면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다른 피조물의 얼굴에서 자신을 찾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만들어 내고, 남이 아니라 나의 얼굴에 집중하는 거울을 만들어 낸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나르시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수선화가 되어 버렸다는 서정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성서에서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남과 비교하여 뛰어 넘으려는이기적인 인간의 결말을 서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악한 마음의 시작이요, 살인, 인류의 멸망과 창조된 피조물들의 공멸, 공동체의 분열과 가족의 파괴, 약속받은 땅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비교하지도 말고, 질투하지 않으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교하려는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이 된다면,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